기적은 없었다… 광주FC 예고된 추락

K리그 2년만에 2부리그 강등 … 주축선수 이탈 땐 내년 시즌도 난항 예고

사연 많고 탈 많은 광주가 2부리그라는 또 다른 도전무대에 선다.

광주 FC가 2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K리그 43라운드에서 0-2로 패를 기록하면서 2부리그로 추락했다.

2011년 우여곡절 끝에 광주 FC라는 이름으로 K리그에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경험 부족과 소통 부재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강등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로 시작해서 대구로 끝난 2년

2011년 3월5일 광주 FC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역사적인 광주의 K리그 데뷔전이었다. 이후 9승을 쌓은 신생팀 광주는 역대 시민구단 데뷔 최다승(7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K리그에 연착륙했다.

창단 첫해 박기동·이승기·김동섭·이용 등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고, 2011시즌 신인왕 타이틀도 가져왔다.

올 시즌에도 출발은 좋았다. 개막 이후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속에 상위권으로 도약했지만 수비불안과 경험부족에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세가 계속됐다.

10경기 연속 무승으로 강등위기에 몰렸던 광주는 성남과의 40라운드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인천·대전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친 광주는 프로 무대 첫 승의 제물이었던 대구에 결정적인 한방을 얻어맞았다.

광주는 초반에 찾아온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선제골을 내준 뒤 다급하게 공격을 펼치며 끝내 대구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역대 전적에서 2승3무로 앞서있던 광주였지만 대구전 첫 패배로 강등절벽으로 떨어졌다.

◇내·외부의 끊이지 않았던 잡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상무를 앞세워 프로축구연맹에 가입비 10억원과 축구발전기금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내고 K리그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008년까지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경우 40억원을 승계받는 조건이었다. 2008년 창단에 실패하며 퇴출위기를 맞기도 하는 등 어렵사리 광주 FC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지만 현실은 열악했다.

연습구장이 없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과 기업체 사내 운동장 등을 전전해야 했고, 올 시즌 완공 예정이었던 클럽하우스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내부의 잡음도 계속됐다. 창단 전부터 직원 채용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광주는 올 시즌에는 박병모 단장과 최만희 감독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흔들렸다. 언론에까지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면서 프런트와 선수단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 내부 단합의 실패가 분위기 저하로 이어졌다.

광주시의 수수방관도 사태를 키웠다. 내부 잡음이 계속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덮으려는데만 급급했다. 뒤늦게 상주직원을 파견해 수습에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프로스포츠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꾸려진 광주의 예견된 잡음이었다.

바람잘날 없는 광주FC 2년

단장·감독 불화 '모래알 구단'
연습구장도 없어 떠돌이 훈련
직원 채용 잡음…팬들 등돌려
클럽하우스 건립 약속도 미적

◇위기인가? 기회인가?

강등이 확정됐지만 2012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는 홈에서 전남과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강등탈출에 실패했지만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광주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이다. 시민구단으로 재정이 열악한데다 2부리그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후원이나 협찬이 줄어들어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광주시의 예산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013년도 광주 FC 예산을 책정해두었지만 강등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100% 반영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단장과 감독의 '책임론' 속에 선수들의 거취 문제도 남아있다. 강등에 따라 주앙파울로와 복이 두 외국인 선수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졌고, 운영비 마련을 위한 주축 선수들의 이적 및 임대도 불가피하다. 선수단의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했지만 내부를 결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주의 준비에 따라서는 그동안 불거졌던 갈등을 수습하고, 2년 간 쌓은 구단 운영의 노하우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2년차 징크스에 묶인 젊은 선수들의 경험이 더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는 2부리그에서 내년 시즌을 맞는다. 승강제는 변화와 경쟁을 통한 K리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목표는 12개 팀이다. 상주와 광주의 강등으로 내년에는 14개 팀으로 1부리그가 운영되고, 내년 시즌이 끝나면 2개팀이 더 탈락한다.

2014시즌 재진입을 위해서는 내년 시즌 2부리그 1위를 우선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1부리그 12위 팀과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굿바이 박찬호

메이저리그 124승·한국서 5승 … 오늘 은퇴선언

'코리안 특급' 박찬호(39·한화이글스)가 현역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전격 결정했다.

프로야구 한화 구단은 29일 "박찬호가 오늘 오후 은퇴 의사를 구단에 전달해 왔다"면서 "구단은 박찬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은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통산 최다승(124승)을 기록한 박찬호가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박찬호는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199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입단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다저스를 시작으로 텍사스(2002~2005년)-샌디에이고(2005~2006년)-뉴욕 메츠(2007년)-다저스(2008년)-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에서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활약하는 동안 개인 통산 476경기에 등판해 124승98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4.36의 성적을 남겼다.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맞아 종착역을 고민하던 박찬호는 지난해에는 오릭스 버펄로스 유니폼을 입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섰다.

오릭스에서는 허벅지 부상 등이 겹쳐 고작 7경기 출장에 1승5패, 평균자책점 4.29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말 오릭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박찬호는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한국 프로야구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찬호가 한국에서 뛰려면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해 2013년부터나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규약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면서 박찬호가 당장 올해부터 한국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충남 공주 출신의 박찬호는 고향 연고 팀인 한화 유니폼을 입고 올해 23경기에 등판해 5승10패, 평균자책점 5.06의 성적을 냈다.

올 시즌 후 은퇴와 선수 생활 연장을 놓고 고민하면서 11월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박찬호는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4일 귀국했다.

박찬호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여러 조언을 들으며 은퇴 후의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있는 동안 날씨가 좋아 훈련을 계속했다"면서 "예전의 체력이 돌아온 듯 의욕이 생기기도 했다가 한편으로는 한계도 느꼈다"면서 여전히 거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최종 결정은 은퇴였다.

/연합뉴스

"류현진 몸값 271억원"

ESPN 전망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입단 협상을 벌이는 왼손 투수 류현진(25)의 몸값을 2500만 달러(약 271억75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인 ESPN은 28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다저스의 투수 영입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ESPN은 다저스가 내달 4~7일 열리는 윈터미팅 기간에 잭 그레인키나 카일 로시 등 거물급 FA(자유계약선수) 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류현진과의 협상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레인키나 로시가 다저스에 입단한다면 기존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와 선발 원투펀치를 이루게 된다.

테드 릴리와 크리스 카푸아노의 몸 상태에 의문 부호가 붙어 있는 만큼 류현진은 그 뒤를 받칠 3~5선발로 활용될 수 있다.

류현진의 협상 기한은 12월10일까지로, 아직 다저스 구단과는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저스가 거물급 선발 영입에 나선 만큼 류현진에게 돌아갈 몫이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ESPN은 "류현진이 5600만달러의 잭팟을 터뜨린 다르빗슈 유(텍사스 레인저스) 만큼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견의 소지는 있으나 2500만 달러 정도라면 류현진을 잡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나지완 "내년엔 홈런왕 도전"

군복무 미루고 오키나와 캠프 합류
김주찬 합류 치열한 외야경쟁 자신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이 두 번째 우승 드라마의 주역을 꿈꾼다.

KIA 타이거즈의 나지완이 2012시즌 마무리캠프에 임하는 각오는 남달랐다. 군입대까지 미루고 선택한 캠프, 생존경쟁도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나지완은 지난 17일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진보다 한 달 가량 늦은 합류였다.

나지완은 "내년이면 벌써 29이다. 나이때문에 군복무를 놓고 고민이 있었다. 군문제로 정리해야할 부분도 있어서 훈련이 늦어졌다. 일찍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했다"며 "내년 시즌에 대한 정리가 된 만큼 후회없는 시즌,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맞게 된 2013시즌이기에 기대가 크다.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나지완은 "내년 시즌 충분히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동안 동료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나이가 있는 선배들도 있고, 윤석민도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군대를 다녀오면 이곳에 없는 선수들도 있다는 생각에 군복무를 미뤘다"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이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FA 대어 김주찬의 영입으로 더 치열해진 '경쟁'의 문을 우선 넘어야 한다. 김주찬·이용규·김원섭·김상현 등과의 외야 생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나지완은 "외야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마무리캠프에 와서 몸무게도 5kg 감량했다. 늦게 훈련을 시작했지만 남은 겨울 더 열심히 2013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했던 '한방'이 나지완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다. 그는 "입단 후 가장 많은 도루(7개)를 했는데 열심히 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보기보다 빠른 편이다. 내년에도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무엇보다 한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팀내 홈런 1위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성적이다. 한방에 대한 기대가 크셨을텐데 11개의 홈런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홈런왕 경쟁을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